

고대법학

2014 Autumn, Vol. 7

발행일 2014년 11월 30일, 제7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김인현 편집부 편집장 유지형(5기) 편집부 황정원(5기), 금현경(5기), 양현주(5기), 조예진(5기), 이상호(6기), 김재희(6기), 윤성진(6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1 기획·편집·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The Fall The abundant, redundant season.

- 02 INTERVIEW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
- 04 SEASONS OF KU LAW ABL소개 및 심포지엄
- 04 GRADUATE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 06 INTERVIEW 윤남근 교수님의 一問一答
- 08 NEWS 전국 로스쿨 평가
- 09 NEWS 학교 소식
- 10 INTERVIEW 해외인턴 현황
- 11 INTERVIEW 국내인턴 현황
- 12 CELC 조정클리닉 & IP클리닉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

동아시아 해상법연구의 중심지를 꿈꾸며

본지는 5호부터 시리즈 기사로 법학연구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해상법센터’는 우리나라의 해상법 및 해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부원장이자 해상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있는 김인현 교수를 만나 해상법센터의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해상법센터의 소장이 되기까지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대법학>의 지도교수이기도 합니다. 해상법, 보험법, 상법총칙상행위 과목을 강의하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 졸업 후, 당시 최대의 선박회사에서 항해사와 선장으로 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연소 선장’의 영광도 잠시, 선박 침몰사고를 경험하게 되었고, 증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석하면서 영국 선장들이 법학적 소양을 갖추어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난사고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1년간 준비를 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조교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1995년 김&장 해상팀에서 선장(해사자문역)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주경아독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상법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1999년부터 목포해양대학교에서 7년 반 동안 교수로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부산대 로스쿨에 1년 반 근무하다가, 2009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상법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해상법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2010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업계의 지원을 받아 저, 채익식 교수님, 최용철 연구원, 손점렬 연구원 외 연구조교 2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강의와 연구는 실무가 유리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 해상변호사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신입변호사 실무 강좌가 있습니다. 매년 3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ii) 해상법 전문가가 강좌는 그 해의 해상법분야를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해운전문저널인 해양한국에 좌담회 내용이 실립니다. (iii) 선박건조금용법연구회가 있습니다. 1년에 5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있



으며 나후턴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에 대한 연구회입니다. (iv)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과 해상법계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국문판은 1년에 4회, 영문 및 중국어판을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v)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의 해상법관련 중요사항을 연구·발표합니다. 금년에는 세월호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3회 모두 세월호 관련 법률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vi) 해상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외국학생들에게도 장소 제공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법연구의 중심지로서 우리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장기적인 꿈입니다. 해상법은 국제성이 강한 학문인만큼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사우스 햄튼의 ‘short course’에서 3주간 영국의 해상법을 강의하는 것처럼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도 해상법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한중일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문성을 높여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

리 해상법의 수월성을 외국에도 널리 알리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해상법 분야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상법 관련 분쟁이 영국의 준거법을 사용하면서 영국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해상변호사가 200여명인데 반해, 교역량 세계 10위, 선박 건조량 세계1위, 선박보유량 세계5위인 우리나라가 4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오는 좋은 판례를 우리나라 및 외국의 업계에도 꾸준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거에 비하여 업계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에 선 현재 해상법 분야가 크게 각광받고 있고, 학생들 사이

에서 해상변호사가 인기 높은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 우이산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만 보더라도 해상법의 중요성과 해상변호사의 수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해사법원의 설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상법 분야의 수요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지리라 예상합니다.

학생들이 해상법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상법 강좌가 개설되는 로스쿨의 수가 적은 상황에도 고려대로스쿨에서는 해상법, 국제해상운송법(영강), 선박충돌법, 해상보험법 등 해상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해상법학회에서는 해상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법 전문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상법 관련 기관에서 인턴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학생들의 국내외인턴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매력일 것입니다. 다른 전문인증 과정과 비교하여 해외인턴을 갈 기회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로펌인 라자탄과 알렌그랜틀 그리고 중국의 왕징, 홍콩의 리드스미스등 저명한 해외로펌에 연간 10여 명이 기회



를 갖습니다. 국내에서도 인턴과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 전문 인력을 장려하기 위해 도선사회회, 선급협회, 선주협회 및 개인 단체에서도 각종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의 지원과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로스쿨의 학생들은 해상법 전문가의 길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 동정

김인현 교수 (상법/해상법 전공)

2014년 6월 25~26일, 보스턴 대학 로스쿨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법대 학장회의에서 “한국의 변화된 법학 교육(Korean Education System for Legal Professions—Old and New System)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8월 15~17일, 해상법 전문인증과정은 이수 중인 학생 2명과 홍아그린호를 타고 승선실습을 다녀왔다.
2014년 8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제70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선박안전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정호 교수 (상법 전공)

2014년 6월 25일, 상법총칙 상행위법(법문사, 제2판)을 출간하였다.

박경신 교수 (미국법 전공)

2014년 7월 21일, 중앙일보 시론 “잊혀질 권리, 진실유보죄, 세월호”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4년 8월 8일, “감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겨레에 기고하였다.

박세민 교수 (상법/보험법 전공)

2014년 9월, IEL(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w)의 보험법 한국주석서의 출간이 허용되어 인터넷 상에 발간하였다.

박지순 교수 (노동법 전공)

2014년 7월 24일, 문화일보에 “고용의 다양성 공정성 높여야 한다”라는 칼럼을, 2014년 8월 22일 “청년 일자리 뺏는 ‘기득권 노조 안되려면’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4년 8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신영호 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4년 5월 23~25일, 중국 허퉁강대학교 학술교류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4년 6월 23~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대학을 방문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8월 21~23일, 제2회 아태지역 국제투자 중재 모의본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고려대 C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8월 28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하여 학생 교육 등에 대하여 이득홍 연수원장과 환담하였다.

장영수 교수 (헌법 전공)

2014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선일보 시론 “민주주의 만큼 성숙해야 할 범치주의”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4년 8월 20일, “출판기념회, 은밀창구역할 막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문화일보에 기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학년 때에는 외부활동이나 교과목 외의 기타 활동에 몰두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철저히 정독하고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2학년에 올라와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펌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에 성적이 오르는 학생을 주목하여 보면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발전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법학도들은 학부 때의 전공이라는 큰 장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출범 후 처음 실시된 대규모의 평가가 이번엔 <한경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로스쿨은 국내 사립대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QS 평가에서도 세계 50위에서 100위 사이로 평가되어 국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35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고려대 법과대학 100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려대 로스쿨은 아시아 3위 세계 30위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지도에 잘 따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시면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KU**

황정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윤남근 교수 (민사소송법/도산법 전공)

2014년 7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에서 제1주제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파산법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재형 교수 (국제법 전공)

2014년 8월 29~30일, 제5회 WTO/FTA 모의재판경연대회를 CJ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이준일 교수 (헌법 전공)

2014년 8월 18~22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협정 관계에 있는 일본나고야 소재 메이조대학에서 한국법 일반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존 리 초빙교수

2014년 8월 11~15일, 미국 연방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시카고 소재) 판사인 존리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로 임명되어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하였다.

하태훈 교수 (형법 전공)

2014년 8월 19일, 서울신문에 “평시의 군사법원은 폐지해야”라는 칼럼을 게재하였고, 2014년 8월 22일, 제1회 ABL Symposium(아시아 비즈니스법의 최신 경향)을 개최하였다. **KU**

유지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ABL소개 및 제1회 Asian Business Lawyer Symposium

우리나라 대표 법학저널 ABL



ABL이란? Asian Business Lawyer(편집장 정영환 교수, 이하 ABL)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2008년 5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영문지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학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재정지원으로 매년 2회 발행되고 있으며, 2008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기업, 인수합병, 조세, 금융,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공정거래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법 분야의 논문 및 최신판례 소개를 주된 목표로 한다. 특히 ABL은 편집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타 저널과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ABL 학생편집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및 학부생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영문 논문 편집과 Student Note 작성을 담당한다. 지난 5월 31일에는 제13호가 발간되었다. 특히 이번 호부터는 "Special Topics" 세션을 마련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ABL을 SSCI 저널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활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에는 제1회 ABL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8월 22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The Latest Trends of Business Law in Asia"라는 주제로 제1회 Asian Business Lawyer Symposi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소 Asian Business Lawyer 저널의 발행을 지원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본교의 이용훈 석좌교수(전 대법원장), 하태훈 법학연구원장, 정영환 ABL 편집장도 자리에 함께하였다. 김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공통의 관심사인 아시아 비즈니스 관련법의 최신 경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Wei Dan 교수(마카오 대학교)는 "Implementation of Antitrust Law in Emerging Markets: a Case Study of China"라는 주제로, 이머징마켓의 대표 격인 중국의 독점규제법을 여타 선진국의 법과 비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중국의 반독점법 AML(Antimonopoly Law)를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기관인 MOFCOM(Anti-Monopoly Bureau of the Ministry of Commerce)의 활동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규범과 현실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 역시 국내외를 비롯한 각국 경제, 금융 분야의 법적 현안과 판례 등을 다루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승희 변호사는 KIKO 관련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발표하였으며, Wang Jiang Yu 교수(싱가포르국립대학교)는 싱가포르의 회사법의 규제 사항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1952년의 선박가압류 조약에 대한 Chan Felix 교수(홍콩대학교)의 발표 후에는 본교의 김인현 교수와 토론이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한편 법학연구원과 Asian Business Lawyer 편집위원회는 "ABL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 학자들의 비즈니스 관련법 연구의 열린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KL**

이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1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세요!

서민정 변호사

졸업생 인터뷰로 재판연구원 생활과 로펌 변호사 생활 두 직역을 모두 경험한 서민정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 이미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본 선배가 전하는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서민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하였다. 서 변호사는 졸업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서울고등법원 일반민사부, 건설전담부에 재직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유) 올촌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된 업무 분야는 송무, 공공계약이다.

Q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서 석사수료를 할 즈음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험 전 미리 시험답안 형식으로 답안을 써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스터디 등을 통해 자신의 답안 형식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검토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4기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많이 풀어보라'는 것이고, 주요 판례의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많이 보고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기 후배님들 충실히 준비하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리라 기대합니다.

Q 재판연구원을 희망하는 후배 학생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법원 실무수습을 통해 법원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험 준비나 임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기보다 법원에서의 생활이 나와 잘 맞는지를 잠시나마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2년간의 재판연구원 생활에 대한 소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근무 했었는데, 신건이 들어오면 우선 내용을 요약하고 간략한 검토를 곁들인 신건메

모를 작성하여 재판장님과 주심판사님께 드립니다. 그 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메모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 체육행사 등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재판연구원실이 따로 있어 같은 방에 있는 연구원들끼리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Q 현재 로펌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로펌의 생활은 자신이 어떤 팀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도 대체로 낮은 연차의 로펌 변호사들은 위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2

'삶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고민하세요!

황병훈 변호사

법무법인 올촌에서 M&A, 금융일반, 자산운용 등을 맡고 있는 황병훈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부 방법에 대해 강조하는 그가 말하는 법학공부의 '정도'를 들어보자.



황병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삼성생명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부터 법무법인(유) 올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M&A, 금융일반, 펀드·PE, 자산운용·집합투자, 상사·경영권분쟁, 증권금융분쟁이다.

Q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로스쿨에 입학했나요?

2005년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하며 법률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마침 2009년도에 로스쿨이 설립된다고 해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 공사로 돌아가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려는 생각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후배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법학이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설과 판례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삶의 흔적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투었는지, 만약 나라면 그러한 상황에

생각됩니다.

Q 두 직역을 모두 경험해본 선배로서 조언은?

재판연구원 생활과 로펌 변호사 생활을 비교하자면, 우선 고객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재판연구원일 때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반면, 로펌의 경우 갑자기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의 예측가능성과 별개로 업무의 양 자체는 재판연구원과 로펌 변호사 중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딜 가도 힘은 들고 자기가 잘 맞는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수

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쳤는지 상상하고 고민하면서 법학을 공부한다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학이 조금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판례는 절대 요지만 읽지 말고 전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Q '가인법정변론대회' 수상 경험에 대한 소개

가인법정변론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모의 법정변론 대회로 올해 6회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했던 제1회 대회에서 저는 순천재 변호사, 남장현 변호사와 팀을 이뤄 민사 부문에 참가했고, 본선까지 진출하여 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 단계마다 팀원들과 거의 1주일씩 합숙하며 법세워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서문을 완성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점임 교수님께서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연락을 드리고 사무실로 찾아 보았던 기억이나 팀원들과 상황을 재현하며 혹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허점은 없는지 찾아보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인법정변론 대회는, 그 자체로도 좋은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고, 다른 로스쿨학생들과도 인연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한 번 참가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Q 로스쿨 재학 중 전문분야에 대한 준비도 따로 했는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기초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는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런 준비를 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로스쿨생보다 해당 분야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펌에 들어와 일하다보면 말

습 기회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그 생활을 경험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그 외 로스쿨 생활에 대해 조언은?

성적으로 인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설령 성적이 본인의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더라도 당당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면 동기들이나 선배배 사이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서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사건수임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동기들과 선배배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성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L**

김현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그대로 들도 보도 못한 수많은 법령들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은 결국 누가 얼마나 민법 등 기초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쌓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 로펌변호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후배에게 로펌변호사의 생활에 대한 소개 및 당부말씀?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M&A 등 거래에 있어 투자구조 설계, 주식매매계약이나 주주간계약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이를 위한 실사진행 및 협상, 기업결합신고나 외국환 신고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와 기타 고객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서 작성 등입니다. 로펌변호사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보장되고, 매일매일 새로이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왜 로펌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로펌변호사가 나와 잘 맞는 직업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정말 로펌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민법과 상법(송무 업무를 주로 생각한다면 민사소송법 포함)을 충실히 공부하시고, 행정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나 기타 제2외국어 잘 하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Q 그 외, 로스쿨 생활에 대해 조언한다면?

로스쿨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L**

김현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윤남근 교수님과와의 一問一答

실력과 논리,
경청과 설득



지난 9월 4일 점심, 윤남근 교수님을 만났다. 사뭇 근엄해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자 집안 어른님께서 덕담을 건네듯 편하신 태도로 말씀해 주셔서, 한결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말씀 하나하나에 교수님만의 단단한 인생철학이 느껴졌다. 시간가는 줄 몰랐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

KU 교편을 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계기라고 할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도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대에 오기 전에 다른 대학의 제의가 있었으나 고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교수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판사생활 20년이 되던 해에 법복만 입고 사는 것보다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KU 현재 학교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형사절차의 개선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던 중 고대 법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민소법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니 법관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로스쿨 설립 발표가 난 겁니다. 로스쿨 설립 즈음, 다른 과목 교수도 많이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형사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결심했던 대로 민소법을 택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민소법, 집행법, 도산법 모두 실무가 출신 교수로서 가르칠 것도 많고 연구할 소재도 많아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형사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U 전도유망한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관하여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전도유망한 분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법, 경제법, 노동법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망하다는 이유로 일찍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 기초법 분야에 탄탄한 실력을 쌓고 실무까지 익힌 다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망한 분야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성공한 것이

고, 그 순간 자신의 업적과 노력에 걸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전문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KU 학창시절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수학과 경제학을 참 좋아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외국 유학을 해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유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80년 제대 후 법학으로 진학하였고, 그 후 '8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85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에 국제거래 전문변호사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무역 등 국제거래에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로펌에 가서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로펌은 나중이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며 법관으로 임관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판사로 임관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뚜렷한 꿈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떠밀리듯’ 살아왔지요. (허허)

KU 구 제도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은 역시 문이 너무 좁아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약 없는 시험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점이 있겠지요.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법조계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만성화된 적자구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예일대를 다녀왔는데, 미국 로스쿨들은 대개 한 학년 학생 수가 200명이 넘는데다가 수업료는 우리의 두 배가 넘고 외부로부터의 기부금도 엄청나게 많아 교수진, 개설과목, 실무교육 등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모든 로스쿨들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로스쿨들을 통폐합해서라도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확보하고 재정적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로스쿨 교육 자체가 학부와 그다지 다

를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국 명문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대비는 학생들에게 맡기고, 강의시간에는 케이스와 사회문제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법적인 사고와 법률가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수업은 아직도 너무 지엽적인 시험대비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KU 어느 제도가 보다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적합하다고 보는지요?

아직 어느 제도가 좋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이 도입단계에서 목표했던 바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교수진이나 교수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실무교육도 미국식의 임상법학(clinical legal education)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교육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훌륭한 법률가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겠지요. 로스쿨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가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조인 양성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종 고등고시 제도는 국민들에게 ‘이 사회가 그래도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고시제도가 사회통합 기능을 한 것이지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와 같은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도 과거제도는 1,000년 이상 존속되어 왔는데, 과거제도가 갖는 이러한 평등의식과 통합의 순기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도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시 공부를 하여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훌륭한 법률가가 된 예가 얼마든지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 걱정은 ‘고시제도를 없앨 경우 고위공무원이나 법조인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이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믿어야 하는데, 솔직히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였으니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미국 못지않은 법률문화와 법치주의를 구현했으면 합니다.

KU 선배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관직을 법조인 누구나 갈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관은 임기 10년과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고 탄핵이나 형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의사에 반하여 퇴직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을 합니다. 매년 새로 임관하는 100여 명의 법관 중에 1명만 잘못 선발하더라도 그가 10년간 오판을 쏟아낼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표준화된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로스쿨생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잣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의 깊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이 법관이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모두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지 않게 될 것으로 봅니다.

KU 대법관 인사 다양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소위 학계, 검찰 몫의 대법관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관은 철저히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발해야 하고, 어디 출신이 몇 명인지의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지역, 계층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개개인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올라오는 하급심 판결 하나하나를 심사하여 당부를 결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KU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용절차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로스쿨협회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뿐 아니라 평판사 및 시민단체 출신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의하여 추천되는 인물이 좌우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가령 추천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KU 법관 또는 법조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법적인 논증(legal reasoning), 즉 실력과 논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인내력 및 절제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인은 항상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남을 잘 설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KU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의 활동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은 항상 도전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 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



원에 있을 때는 장애인차별,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등의 문제가 관념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으로서 수많은 인권침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소외된 사람들,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을 방문하여 살필 기회가 종종 있다 보니 인권에 대하여 체감을 하게 되고 사망감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KU 북한인권분야의 향후 전망 및 학생들에게 조언해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관하여 무관심한 데 대하여 요즘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이 인권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9년 초대 CLEC 소장으로서 학생들 10여명을 대동하고 미국 Stanford, UC Berkeley, Hastings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방문하고, 이 기회에 장애인인권단체인 DRA, 인터넷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추창하는 인권단체인 EFF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 모두 구성원 거의 전부가 변호사들이어서 놀라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DRA에는 맹인인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법정변론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판결을 받는 것이 사회적 임팩트도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도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KU**

전국 로스쿨
평가

전국 로스쿨 평가 고려대 종합 2위 · 사립대 1위

지난 2014년 10월 8일자 한경비즈니스(제983호)에는 전국 로스쿨 평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한경비즈니스는 2009년 로스쿨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스쿨이 배출해 낸 변호사들의 직업 수요자인 로펌과 기업 법무팀에서 본 각 로스쿨의 실력을 조사하였다. 이번 평가는 로스쿨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평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누구보다 그들의 실력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것인 만큼 현재 각 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NICE 평가정보와 한경비즈니스가 공동 선정한 2014년 200대 기업의 법무팀 및 기업 법률 담당자와 50개 주요 로펌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평가 대상은 전국 25개 로스쿨이고, 평가 항목은 총 8개로 '법 지식', '법 응용력', '실무 관련 훈련', '분야별 전문성', '다양성 추구', '정의·불편부당·도덕성 교육', '지역사회 공헌', '진학 추천'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종합2위·사립대 부문 1위를 차지하여 전통의 명문인 고려대 법대의 명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의 교수진은 세계적 인 석학과 법조 실무의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 최고의 교수진이 더해져 '법 지식', '법 응용력', '실무 관련 훈련', '분야별 전문성' 부문에서 2위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정의·불편부당·도덕성 교육'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적 법률

가를 양성하려는 고려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잘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진학추천' 항목에서는 67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1위인 서울대 로스쿨과의 차이가 단 1점에 그친 점을 보았을 때 이 부문에서의 평가자들의 인식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 순위에서 고려대는 450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는데, 1위 서울대와의 점수 격차는 단 20점밖에 나지 않는다. 법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턴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고려대는 향후 종합 1위의 자리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 항목별 순위

순위	법지식	법응용력	실무관련훈련	분야별 전문성	다양성 추구	정의·불편부당·도덕성 교육	지역사회 공헌	진학추천
1	서울대 73	서울대 73	서울대 69	서울대 67	연세대 47	고려대 52	부산대 38	서울대 68
2	고려대 71	고려대 66	고려대 66	고려대 62	서울대 46	서울대 48	전남대 36	고려대 67
3	연세대 66		연세대 64		성균관대 42	연세대 41	경북대 30	
4	성균관대 52	성균관대 52	성균관대 49	성균관대 48	고려대 41	성균관대 34	서울대 26	성균관대 51
5	한양대 34	한양대 30	한양대 35	한양대 26	한양대 27	서강대 33	고려대 25	한양대 30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식

2014년 1월1일~11월 6일 현재

약정회원명	납입금액	약정회원명	납입금액
윤태석(KNA최고위과정 5기 ㈜세종 대표이사)	100,000,000	(재)창강재단	35,960,000
김진우(KNA최고위과정 4기 ㈜삼광 대표이사)	100,000,000	법과대학 84학번 동기회	30,000,000
KNA최고위과정 제5기 원우회	100,000,000	형애장학회	50,000,000
법무법인율촌	71,500,000	윤남근(교직원)	20,000,000
형애장학회	50,000,000	어도일사(대표 배정철)	20,000,000
김연장교우회장학금	45,000,000	석림회장학금	10,280,000
강경태(법86) 강한승(법87) 김은집(법86) 재 구(법86)		한국도산사협회	10,000,000
김정석(법81) 김진환(법87) 박민정(법90) 박성수(법84)		이석우(학부모)	10,000,000
박인동(법81) 박정규(법69) 박창수(법87) 이경규(법82)		유영일(일반)	10,000,000
이동재(법84) 이상진(법86) 이 옥(법82) 이정수(법69)		(사)한국선급	3,000,000
정교회(법91) 최찬목(법80) 허용행(법90) 한정일		국속육장학기금	2,200,000
법학전문대학원교우장학회	42,610,000	서보협(법학77)	500,000
재단법인 증권당 고촌재단	41,484,000	임은정(법학93)	40,000
고려대학교교우회	37,000,000		

▶ 2014 대한민국 로스쿨 랭킹

(대기업 법무팀 · 로펌평가)

전국 로스쿨 평가 종합순위			로스쿨 평가 사립대 부문 순위		
순위	대학명	총 점	순위	대학명	총 점
1	서울대	470	1	고려대	450
2	고려대	450	2	연세대	434
3	연세대	434	3	성균관대	346
4	성균관대	346	4	한양대	215
5	한양대	215	5	서강대	167
6	서강대	167	6	경희대	79
7	부산대	82	7	외국어대	76
8	경희대	79	8	중앙대	72
9	외국어대	76	한경 비즈니스 제 983호 (2014.10.8) 제공		
10	중앙대	72			

▶ 법학연구원 센터 학술대회지원 기금현황

발전기금 삼성전자외 22건
해상법센터지원
중국법판사연수지원

52,500,000

☞ 교우회소식

IEL

IEL은 세계각국의 분야별 법에 대한 작은 주석서 모음으로 헌법, 형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보험법, 가족법, 경쟁법 등 25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도 있고 책으로도 발간된다(www.IELaws.com 또는 www.kluwerlawonline.com). IEL의 주석 시리즈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현 교수가 운송법(Transport Law)을 이미 출간하였고, 박세민 교수(보험법 Insurance Law), 지원림 교수(민법 Contract), 이주원 교수(형법 Criminal Law), 조영선 교수(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도 각각 전공분야의 한국필자로 선정되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판사 연수 실시

중국 성시대학 법학석사과정 중국판사 연수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연수를 가졌다. 참여인원인 1차는 6월 1~7일에 걸쳐 고위판사(JSD과정) 14인, 인솔교원 2인, 2차는 6월 29일~7월 5일 중견판사(LLM과정)23인, 인솔교원 1인이었다. 이 연수는 박노형 교수가 담당하며 2010년부터 4년째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우역보험공사 등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제5회 WTO/FTA 모의재판

제5회 WTO/FTA 모의재판대회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소장 이재형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최로 8월 29~30일 고려대학교 C1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고려대 팀이 우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연세대가 준우승,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공동3위를 하였다. 서울대가 최우수 종합서면상, 연세대가 최우수 원고서면상, 고려대가 최우수 피고서면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 이문열 원우가 최우수 변론상을 수상하였다.

제5회 국제 ADR모의재판

홍콩성시대학에서 7월 27일 ~ 8월 2일 개최된 제5회 국제ADR 모의재판대회에서 고려대 팀이 단체2등(5기 최지연, 5기 박소영, 6기 김민우, 6기 강유승) 및 개인 2등(최지연), 4등(김민우)을 차지하였다.

사이버법센터 포럼개최

법과대학 부학장 겸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역량을 수행하는 이재형 교수의 후임으로 이대희 교수가 지명되어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KL**

☘ 교우회소식

상반기 영진교우축하연, 후원금 전달 및 동기회장단 간담회

8월 29일(금) 해우리식당에서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70)와 지성배 국회사무처 사무차장(74)을 상반기 영진교우로 선정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73)을 초대하여 상반기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각 동기회장단과 각종 행사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4회 법대교우회 바둑대회

9월 13일(토) 한국기원에서 제4회 법대교우회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반교우들의 화합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정신을 이어받아, 특히 올해 행사를 시작한 김종민 회장이 참석하여 시상까지 하는 뜻 깊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제2회 법대교우회 등산대회

10월 25일(토) 4.19 제2회 법대교우회 등산대회를 하였다. 법대교우회 등산대회는 일반 교우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10월 마지막 주말에 56학번에서 98학번까지 120여명이 함께 어울려 산을 올랐다. 56학번 선배님들의 많은 참여로 다수 참가상 2등에 입상하여 많은 후배들이 교우들 간 끈끈한 모습을 본받는 기회가 되었다.

고문자문역 초청간담회

11월 5일(수)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아이리스크에서 김진웅 총장(45학번), 김두현 변호사(46학번)을 비롯하여 황상 고대법대교우회를 위해 힘써주는 고문 자문역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뜻깊은 격려의 말을 전하였고, 또한 선배배 간에 반갑게 환담도 하였다.

2015년도 고대법대인의 밤

2015년 2월 10일(화) 저녁 6시 30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고대법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75학번 동기회가 주관으로 개최되는 내년 총회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노환균 준비위원장(75)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연예인이 진행하던 여흥 순서를 비용절감과 우리 법대인의 행사로 내실을 기한다는 취지로 학번별 장기지랑 순서도 예정되어 있고, 교우회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대교우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KL**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2015 신입생 모집절차 시작 입학설명회 개최



지난 8월 30일 '2015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신법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월 12일과 19일에는 각각 인문계, 이공계 학부생들을 위한 교내 설명회도 진행되었다. 현장은 고려대 로스쿨을 통해 글로벌 법조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열기로 뜨거웠다.

입학 전형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원서접수로 시작하여, 11월 19일에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이후 11월 29일 구술면접을 통해 12월 12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KL**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고려대 로스쿨 해외인턴 현황

최대한 많이 꿈꾸고, 느끼고 오라!



싱가포르의 Rajah&Tann과 Allen&Gledhill, 홍콩의 Reed Smith, 미국의 DLA PIPER, 캐나다의 Borden Ladner Gervais 과 같이 우수한 로펌들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들이 다.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예비법조인이라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타 법학전문대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활발한 국제진출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매 방학마다 20명에 가까운 원생들이 해외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돌아온다. 앞에서 언급한 곳들은 원생들이 실제로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에 인턴십을 다녀온 곳들로 그 외에도 북경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대표단 북경사무소(ICRC),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등 이들의 활동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의 이러한 활약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국가간의 상거래에 따른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중재 등의 분쟁해결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조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유능한 분쟁해결사로 활동할 준비를 미리 마친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외로펌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보다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듣기 위해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민 졸업생(1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중인 김진하 원우(4기)를 만나보았다. 이성민 졸업생은 싱가포르의 Rajah&Tann 에, 김진하 원우는 싱가포르의 Allen&Gledhill에 각각 2주간 인턴십을 수행한 적이 있다.

■ KU 해외로펌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 **이성민 원우** 주로 해상법 분야에서의 기록 검토와 판례 리서치 업무를 하였습니다. 생소한 분야이긴 하였지만,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회사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빌려와 하루 종일 모니터와 책을 붙들고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진하 원우** 해외인턴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주로 리서치, 판례분석, 소송전략설정 등 입니다. 그 외에도 로펌소개, 법원 견학 등 현지 문화를 이해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가 다녀온 로펌은 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 KU 해외 인턴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 **이성민 원우** 여러 변호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분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장래에 제 **career**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주간 인턴과정에서 얻은 것들 것한국에서 혼자 공부하며 얻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하 원우** 해외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평가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턴과정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턴생활을 마치고 지도 변호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 깨우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해외인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처럼 국제적인 마음가짐과 포부를 갖고, 미래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신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인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두 원우는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인턴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두 선배는 '최대한 많이 꿈꾸고, 느끼고 오라'라는 조언을 하였다. 짧은 인턴기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의식과 포부를 크게 갖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려는 것이다. 그 때 느낀 감정과 열정들이 훗날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변호사의 해외업무영역이 늘어나는 시점에 세계적인 로펌이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경험하며 집중적으로 국제적인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여 해외의 우수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이 있기에 후배들 또한 해외진출이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본지를 통해, 인터뷰에 응해주준 이성민 원우, 김진하 원우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U**

김재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 2013년 해외 실습 내역

귀속년도	실습기관	국가	귀속년도	실습기관	국가
2013	DLA Piper(미국)	미국	2013	Anthony Siu&Co., Solicitors&Notaries	홍콩
	ILO(국제노동기구)	스위스		Deacons	홍콩
	Reed Smith Richards Butler	홍콩		ONC Lawyers	홍콩
	WANG JING&CO.(상해)	중국		King&Wood Mlesons	홍콩
	지평지성(프놈펜)	캄보디아		Reed Smith Richards Butler	홍콩
	태평양(상해)	중국		UN	스위스
Allen&Gledhill(싱가폴)	싱가포르	로고스(하노이)	베트남		
			지평지성(호치민)	베트남	

▶ 해외인턴 TIP

해외인턴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문인증담당 교수님께 신청하면 담당교수와 학생지원센터장이 직접 해외로펌에 의뢰하여 해외인턴이 결정되는 방법과 법무부등 외부기관에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우리 학교는 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학교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업참여도와 학점 등을 고루 반영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교수님이나 먼저 인턴을 나간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인턴수기

로스쿨의 장점 중 하나는 방학기간 중 인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기 중 학습한 것을 실무에 적용해보며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14년 여름 방학에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원, 검찰, 로펌 그 외 공공기관 등에서 인턴활동을 하였다. 5기 정유한 원우, 5기 홍세영 원우가 본지를 통해 자신이 다녀온 인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녀온 소감을 전해주었다.

정유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I 들어가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유한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4년도 하계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II 인턴 프로그램 소개

인턴은 2주간 진행되며, 내용은 크게 과제 수행, 강의, 친목 도모 활동으로 나누어 집니다. 과제는 개인별로 공통 업무1(코프), 공통 업무2(송무), 파트 업무(인사노무, 국제중재, 지적재산권, 금융 중 택1)등 총 3개, 조별로 1개가 부여됩니다. 강의는 리서치 강의와 송무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각 업무별 특성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II 도움이 되었던 점

인턴에 나가기 전, 학교 및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배들과의 만남에 참석하여 사전에 인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제는 주로 민법 및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출제가 되므로 기본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사전에 방문하여 미리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인턴 간 정보교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IV 아쉬웠던 점

경제법을 사전에 수강하지 않은 채 인턴 과정에 임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관한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력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에 대한 선행 학습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

게 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 또한 성실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 인턴들은 가깝지는 다른 법무법인의 인턴에서 다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매우 소중한 인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V 소감

대형 로펌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채용합니다. 학점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 과정 동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나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홍세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 들어가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세영입니다. 이번 하계방학 중 인턴활동을 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이하 '태평양')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싶습니다.

II 인턴 프로그램 소개

태평양의 하계 실무수습은 2학년을 전제로 한 인턴 프로그램으로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2주간 지도변호사님이 주시는 개별과제 1개와 공통과제 2개 (국문의견서, 준비서면), 조별토론 또는 발표를 수행하였습니다.

공통과제는 국문의견서와 소송서면(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회사법과 관련한 주제였는데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상법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리서치하여 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참여했던 2차 인턴에서는 집단토론이 이뤄졌고 1차 인턴에서는 조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단토론의 경우 미리 주제를 알려주시고 조별로 입장을 정하여 토론을 준비하여 다른 조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단 토론은 얼마나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

는가가 주요한 평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별도로 영어 인터뷰 일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영어 인터뷰는 신청자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인터뷰는 영문 **letter**를 작성하는 것과 약 10분 정도 미국 변호사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인터뷰에 지원하시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II 도움이 되었던 점

과제 수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완결성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완성한 후에는 제출하기 전에 꼭 인쇄해서 전체적인 배치나 오타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목차를 미리 써놓고 하나씩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아쉬웠던 점

소극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여했던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인턴기간 중에는 본인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의 변호사님들이나 고려대 로스쿨 출신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드리고 같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평양 뿐 아니라 대부분의 로펌이 과제를 워드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워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평소애 워드와 친해지면 저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V 소감

인턴 과제를 수행하며 제가 앞으로 쓰게 될 서면이 가지게 될 무게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서면을 쓰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 인턴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기본 좋은 자극을 받았고 이번 인턴활동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KU**

양현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조정클리닉 지식재산권법-IP클리닉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CLEC 클리닉 중 '북한인권클리닉'이 지난 6호에 소개되었다. 이어 본지에서는 조정 클리닉과 IP클리닉의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조정 클리닉의 팀장 6기 김수민 원우와 IP클리닉의 팀장 5기 김민욱 원우를 만나보았다.

조정클리닉

KU 조정 클리닉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조정제도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 중 하나로 조정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함께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유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정제도의 활용도와 필요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정클리닉은 조정 제도에 직접 참가하여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조정을 홍보하며,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하는 것을(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KU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님과 김제완 교수님이 조정클리닉의 지도교수를 맡고 계시며, 여러 조정위원 교

수님들의 지도하에 실제 조정 현장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쟁해결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맡고 있는 일반 민사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맡고 있는 상사중재 두 가지입니다. 팀원들은 관심분야에 따라 민사조정 또는 상사중재를 선택하여 사건의 서면기록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신 교수님들을 보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조정 참여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 협력, 그리고 화해' 조정포럼에 참석하거나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법원 조정제도의 의의와 성과>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세미나와 법원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KU 조정클리닉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은?

▶ 조정클리닉의 장점은 실제 사건기록을 통하여 실제적 진실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팀원들은 실제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소장, 답변서, 진술서 등의 서면을 접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



히고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유연한 해결을 도모하여 분쟁 당사자의 사합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만큼, 당사자가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내고 제안하며 법학도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KU 원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조정클리닉은 CLEC의 기초 클리닉 중 하나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법적 지식을 쌓는 과정을 통해 법학 실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조정과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P클리닉

KU IP클리닉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IP클리닉은 2014년도에 신설되었으며,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진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고찰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U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고려대학교 안효철 교수님이 IP클리닉의 지도교수님으로 클리닉 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님, 법무법인 한결 문건영 변호사님, 특허법인 로얄 안재훈 변리사님 등 총 4분의

외부자문위원을 초빙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약 15명의 5기 및 6기 재학생들이 IP클리닉의 팀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KU 클리닉의 향후 운영 방향은?

▶ 2014년도 2학기부터 특허청 로스쿨 IP클리닉 프로그램의 시범 사업 운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IP클리닉의 활동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IP클리닉은 아래의 2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법률자문 특허청의 주관 하에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접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사건을 IP클리닉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개최** 학내 자치단체인 지식재산권법학회 해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



양한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KU 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신생 클리닉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IP클리닉은 이번 학기에 특허청 로스쿨 IP클리닉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CLEC의 주요 클리닉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주저없이 IP클리닉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KU**